

국내 최초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기대감'

전남도교육청 박람회 프레스투어 8만7000㎡ 면적서 139개 프로그램 AI기반 학습 데이터 공유 미래교실 22개국 교육·구글 등 에듀기업 전시 "미래교육 실제 구체적으로 구현"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전남도교육청이 주요 프로그램과 전시 시설을 공개해 세계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100여명의 취재진을 대상으로 프레스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의 개최 의의와 주요 행사 내용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시작으로 엑스포홀부터 미래교실, 국제교육관 등 핵심 콘텐츠들을 미리 선보였다.

각종 세미나, 포럼, 기조강연이 열릴 엑스포홀부터 걸그룹 '오마이걸'과 다른 음악가들이 무대를 선보이는 에듀드림 K-POP콘서트 현장인 엑스포 광장에서는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였다.

이어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이자 국내외서 가장 많은 관심이



전남도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을 이틀 앞둔 27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프레스 투어를 진행한 가운데 국제관A에서 초등학생의 미래교실 현장이 공개됐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쏟아지고 있는 미래교실의 모습이 공개됐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A동에 구축

된 글로벌 미래교실은 유치원 1실, 초등1실, 중등1실, 프로젝트1실, 스마트오피스 1실 총 6개 실이 마련됐다. 이날 초등 1실

에서는 학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수업이 진행돼 취재진들의 이목을 끌었다.

초등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학교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실시간 번역 시스템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수업을 받고 있었다.

중등교실의 미래 모습 또한 관심을 끌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패드로 된 교과서를 읽으며 수업을 진행하고, AI가 패드와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비언어적 신호를 감별해 실시간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교사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어 싱가포르, 영국 등 22개 참여국들의 세계 교육현장을 만나는 국제교육관에서는 각국이 직접 제시하는 나라별 미래 교육 방향과 우수 성과를 전시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었다.

공동 주최기관인 전남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의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전남교육관과 경북교육관이 마련됐으며, 이밖에 15개 시·도교육청이 특색교육 활동을 소개하는 시도교육관 또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관에서는 국내외 플랫

폼 대기업들의 혁신적인 에듀테크 비전과 미래수업 공간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LG, 애플, 인텔 등 대형 교육플랫폼 8개 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한 교실수업의 변화를 전시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면적의 약 절반인 8만7000㎡ 공간에서 5일간 139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방문객은 약 16만명으로 예상된다.

박선미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단장은 "이번 박람회는 막연했던 '미래교육'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라며 "전남 교사들이 제안하는 2030년 미래수업, 세계적 석학, 22개 참여국과 논의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등 지역 중심 글로벌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는 전남도교육청·교육부·전남도·경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박람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kglocaled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 남구 통일축제 인상적... 정부 차원 협력 논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광주 방문 조선대서 북한 실상 관련 특강 "지역 통일 관련 지원방안 모색"

"광주 남구가 통일교육 뿐 아니라 남북 교류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통일 축제 등은 인상적이다. 통일부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겠다."

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알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또 지난 3월1일 정

부가 발표한 '새로운 통일담론 제시'와 관련된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해 특사 파견을 통일부에 제안했다. 또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통일과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통일담론을 모색했다.

이어 김 장관은 조선대 경상대학 이주현홀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을 주제로 ROTC생도 15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김 장관은 "최근까지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2%가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는 등 북한의 식량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했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현재 공식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24.7%에 불과하고 대신 장마당 등 비공식적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가 68.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가정용 전력 공급 시간도 4.3시간에 그치고 난방 연료로는 나무를 쓰는 경우가 69.7%에 달하는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연 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장

관은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와 인권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평화통일'과 관련 국제 사회의 협력과 동의를 구하는 일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갈수록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전라권의 전문가들도 북한 핵문제, 인권 악화, 국제정세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광주 남구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상 깊게 보고 있다"면서 "탈북민 지원 등 지방에도 통일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노병하·사진·나건호 기자

2024 목포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2024년 5월31일(금) 오후 2시

•장소 영암금호방조제 해안가 및 삼호소형어선 물양장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해양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청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 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 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바다와 접해 있는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다살리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